

신춘문에 당선작

<20면에서 계속>

몸

이 아프면 마음부터 살피세요! 사무실 현관문에 써진 문구가 흐릿한 채 너를 거렸다. 자동센서 장치가 현관 등을 밝혀 주었다. 그렇지만 머리카락에서 지푸 빗방울이 떨어져 시야를 흐리게 했다. 명화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연연은 왜 물에 젖지 않을까? 비 내리는 날에는 나도 연연이 되고 싶어. 폭우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명화가 연연이라도 뒤집어쓰고 있었으면 싶었다. 그보다는 연구소에 있어주길 간절히 기원했다. 상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옥의 공간에 유리 온실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순간 번개를 맞은 것처럼 놀라 울절했다. 통나무에 걸쳐놓은 탈란드시아를 명화로 착각할 뻔했다. 수염 탈란드시아가 어둠 속에서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서 있었다. 치마를

시
에서 운영하는 이주여성단체 사무실은 분주했다. 인근에 있는 세 개의 시군을 관할하고 있어서 늘 일이 많았다. 갖가지 타이틀을 단 교육프로그램에서 이주여성들을 위한 각종 행사까지 많고 있었다. 그 중에서 명화와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도 두어 개는 될 것이다.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입도 빈번했다. 한 여자가 사무실 직원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후 다른 방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서툰 한국어는 도무지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여자의 얼굴에 검푸른 멍 자국이 적혀 있었다. 자신의 얼굴을 의식해서인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처박쳐박 걸어 들어갔다. 제법 부른 배가 걸음걸이를 어색하게 만드는 모양이었다. 부른 배에 비해 여자의 앙상한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폭삭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모질고 질긴 생명체가 여자의 자궁에서 자라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사무장은 가벼운 미소를 띠

에게 정화의 공발 풍경은 어느 정도 위안이 돼 주었다.

택시 기사가 가리킨 곳은 마을 앞으로 작은 삼개천이 흐르고 있었다. 주뻑주뻑 옷자람 것처럼 킁 킁 미루나무뭇 그루가 서 있었다. 동네 어귀는 한국의 농촌마을 어귀와 다르지 않았다. 택시 기사는 작은 구멍가게 앞에 나를 내려놓고 휴먼지를 일으키며 돌아갔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복색이 추레한 남자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주인 여자는 몇 가지 생필품을 진열하고 있었다. 혹시 이명화를 아십니까? 뜬금없는 이방인의 느닷없는 질문은 주인 여자가 술 마시던 남자가 시선을 돌렸다. 주었던 시선을 거두며 남자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죽은 년은 왜? 짧은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죽다니 내 아내 명화는 아닐 것이다. 그대 명화라는 이름은 워낙 이쪽에서는 흔한 이름이니까. 그러나 내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명화를 아십니까?

상점의 나무 의자는 불편했다. 널빤지를 이어 붙여 대충 만들어 줬고 딱딱했다. 그래도 나는 의자에 앉아 오래 버티어 했다. 지폐 몇 장을 쥐어 주자 주인여자는 문을 걸어 잠갔다. 술과 안주도 주문했다. 그러나 술과 안주만으로는 부족한 모양이었다. 오랜 노동으로 손가락 마디마디 딱지가 앉아 있었다. 남루한 행색과 예의 없는 남자의 태도에서 명화와의 어떤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칼자루를 쥔 쪽은 남자였다. 술잔에 술을 가득 따른 나는 지폐 문치를 남자 앞에 내밀었다. 탁자 위에 놓인 거래조건과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던 남자가 피식 웃음을 흘렸다. 기분 나쁜 웃음이었다. 작은 눈이 더 가늘게 찌지면서 돈을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남자는 벌건 콧잔등을 때가 낀 손등으로 쓱 닦았다. 명화를 만나려거든 동네 뒷산으로 가보라야, 거기 묻혀 있구마는. 또 한 번, 그 계집아이는 몽골로 떠났잖아. 몇 잔의 술이 더 비워지자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거라앉았다. 두 명의 명화를 동시에 확인해야 했다. 내 아내와 그리고 또 다른 명화들.

명

화가 처음 남자의 집에 오던 날은 비가 내렸다. 칠썩 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남자는 동네 뒷산에 동생을 묻고 내려오던 길이었다. 낮에 운명을 달리한 여동생을 밤에 묻어와 했다. 때마침 때까지 내려오니 오가는 사람도 없었다. 폐결핵을 오래 앓던 동생 이름은 이명화였다. 그날 밤 강을 건너 온 여자 하나가 남자의 집으로 왔다. 그날 밤부터 강을 건너 온 여자는 이명화가 되었다. 명화는 비를 맞아 오물오물 떨면서 차에서 내렸다. 명화의 옷소매에서 면도칼이 떨어졌다. 두만강을 넘을 때 잡히면 셀 생강으로 숨겨 온 것이었다 한 갈래로 뚝은 머리카락에서는 그때까지도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명화를 데리고 온 브로커와 남자 사이에 거래가 오고갔다.

오랜 병치레를 하던 주인 탓인지 비 탓인지 방은 녹눅했다. 오늘부터 명화의 이불, 명화의 소지품, 명화의 신분증은 모두 강을 넘

보내고 강을 넘지 못했다지. 남자의 특유한 억양 때문인지 강원도 오지의 사투리를 듣는 것처럼 들렸다. 남자의 조부는 아니면 조부의 조부는 한국 땅 어느 산골이 고향이었을지도 모른다. 남자가 왼쪽 다리를 끌며 걸어갔다. 균형을 잃은 걸음걸이 때문인지 구부정한 어깨도 수평을 잃고 흔들렸다. 남자의 발걸음은 뒷산 쪽으로 향하는 듯했다.

탐

승할 때 들고 온 신문을 펼쳐 보다가 그만 접어버렸다. 옆 좌석에 앉은 사람과 보이지 않는 실랑이를 벌이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나무가 등성 등성했던 몽골의 고원을 떠올렸다. 남자의 여동생이 잠든 연변의 동네 뒷산을 생각하게도 했다. 운해가 흐르는 상공을 지날 때는 몽골의 울혼강이 보이는 것 같았다. 명화가 건너야 했던 검고 거친 강물도 보였다. 강 건너편에 남아야 했던 소년을 생각했다. 소년은 아직도 스티로폼에 의지한 채 몸의 반쯤이 물에 잠겨 있을 것만 같았다. 살아 움직이는 형상이 되었다가 다시 엘빙 속 흑백사진

처럼 고요해지기도 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사람들은 소지품을 챙기느라 부산했다. 선반에서 짐을 꺼내는데 낮익은 가방이 시선을 끌었다. 내가 명화에게 사준 체크무늬 가방이었다. 바로 뒷좌석에 명화가 앉아 있었다. 통로 쪽에 앉았던 사람들이 일어서면서 떠밀려 나올 수밖에 없었다. 먼저 나는 나는 뒤따라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체크무늬 가방이 보였다. 긴 머리의 낯선 여자가 내 앞을 스쳐 지나갔다.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발견하자 마음이 급해졌다. 사무실로 향했다. 대낮이었지만 LED간판의 전원부터 올랐다. '송민준 원에 치료센터' 조맹기구들이 실 새 없이 깜박였다. 시차를 둔 깜박임은 문자가 되어 움직였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굳건히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름이 있었다. 온실은 습기로 가득했다. 숨이 막혔다. 명화의 몸이 두드러기가 돌을 만큼의 습도였다.

명화가 사라진 날 밤 나를 놀라게 했던 수염 탈란드시아가 보였다. 세워 놓은 통나무 위에 걸쳐진 줄기는 무성하게 가지들 치며 머리카락처럼 거꾸로 자라고 있었다. 낮에

보는 탈란드시아 줄기는 세 색깔을 보여 주었다. 밤에는 어둠의 색에 묻혀 검게 보였다. 하지만 낮에는 허열계 센 수염 같았다. 허연 수염 같은 불꽃같은 줄기는 땅에 뿌리내리지 못해도 어디서든 살아남았다. 어디에 갖다 놓아도 금방 생기를 되찾아 땅을 향해 자라났다.

사람의 기억은 때로 그 사람을 아프게 한다. 물이 남긴 기억은 그것을 잊기 위해 도망칠수록 명화의 몸으로 반응했다. 기억 속에 내리는 비는 피할 수 없었다. 명화는 온몸에 붉은 두드러기 꽃을 피우며 달 아래 서있고 나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만 보고 있었다. 밤이 와도 달은 보이지 않았다. 검은 구름에 가려 달을 볼 수가 없었다. 명화는 달이 숨어버린 날이면 먹먹한 가슴으로 하늘을 보았을 것이다. 구름 저편에 숨어 있을 달그림자가 희미했다. 검은 구름은 이내 굵은 빗방울이 되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졌다. 나는 빗줄기 사이로 걸어 나갔다. 살갓에 소금꽃처럼 소름이 돋을 때까지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끝>

나는 아내를 찾아야만 합니다

사무장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내게는 희망의 변화였다

입은 명화의 뒷모습처럼. 불안이 나를 조금하게 만들었다. 흙과 퇴비냄새, 나무와 꽃향기, 여러 종류의 밤새가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다 일제히 나를 향해 달려드는 것 같았다. 매일 드나드는 실내정원이었지만 익숙하지 않았다. 상실감은 모든 것들을 낯설게 했다.

내가 가꾼 나무와 꽃과 풀과 이끼들까지 내게 등을 돌리는 것만 같았다. 명화를 숨겨 놓고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초원을 수놓은 야생화의 이름을 큰 비밀이나 되는 것만 같아 내게 말해주던 명화가 없다. 누군가 내게 무슨 비밀이나 되는 것처럼 명화가 있는 곳을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 딱히 기대를 하고 온 것은 아니었지만 허탈했다. 유리온실에 내리치는 빗줄기가 그대로 유리창을 뚫을 기세였다. 몽골의 게르안에서 사라체편과 들던 빗소리가 떠올랐다. 영혼을 깨우는 듯한 음악 같던 그 빗소리, 달의 꽃을 떨게 했던 그 소리. 상담실을 통해 연구소를 빠져나왔다. 송민준 원에치료센터 LED간판이 실새 없이 깜박이고 있었다.

그

너를 기다리는 나는 두려움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 그녀와 나란히 누워 자던 침대가 무서웠다. 네 개의 모서리조차 싫었다. 잔잔한 꽃무늬로 프린트된 이불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스위치를 내렸다. 차라리 어둠이 편했다. 인찬공황에서 마중 나온 그날 이후 명화와 떨어져 밤을 보낸 적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빗물을 똑똑 떨어뜨리며 걸어 들어올 것 같은 생각에 청각이 곤두섰다. 실존신고를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날이 밝았다.

그때 처음부터 시작 하자, 처음부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법이니까. 나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정성들을 그릇들을 닦고 행구면서 기억을 더듬었다. 내 아내는 설거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 다음엔 뭘 하지? 아, 티브이를 켜고 아침뉴스를 볼 것이다. 아내는 버릇처럼 집안일을 할 때도 티브이를 켜놓고 뉴스를 들었다. 화면을 보지 못해도 정경은 열어 놓고 일을 했다. 아내가 했던 것처럼 티브이를 켜다. 그 순간 번쩍이며 시치미 기억이 떠올랐다. 어젯밤 뉴스였다. 밥상을 처리하던 온통 정신을 팔던 그 뉴스를 생각했던 것이다.

프로그램 다시보기를 할 수 있는 티브이가 있었다. 다시보기를 이용해서 찬찬히 단서를 찾자 시작했다. 분명 그 안에서 아내를 움직이게 만든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타방송사보다 한 시간 빠른 뉴스를 전한다며 켜는 주요 사건 사고 타이틀을 소개하고 있었다. 어느 정치인의 뇌물 수수 혐의와 모기업 총수의 해외도피 문제가 이미 여러 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이시기문으로 기후변화가 심해 천정부지 뛰어오른 채소류 값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요동치던 날씨가 급기야 북한 동포들을 수재원으로 만들었다는 보도가 외신을 통하여 전해졌다고 했다. 강마른 소년이 스티로폼 한 장을 붙들고 불어난 흙탕물 위에서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을 배경화면으로 쓰고 있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났다. 아내를 폭우 속에 내몬 결정적인 단서를 찾은 것도 같았다. 휴대폰 번호를 알아둘걸 그랬어, 때늦은 후회였다.

며 목례를 했다. 사무실 분위기가 큰 목소리로 인사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뜻인 듯했다. 그녀는 커피 두 잔을 들고 나와 마주했다. 단체 행사에 동참하느라 몇 번 본적이 있고 식사도 두어 번은 같이 한 사이라 허물없이 내게 물었다. 혼자 웬일이세요? 혼자라는 말이 우주 공간에 버려진 미아처럼 한기를 느끼게 만들었다. 그래, 나는 혼자자 되었다. 나는 대답과 질문이 동시에 내포된 말을 던졌다. 명화가 사라졌습디다. 내 말에 그녀도 어지간히 놀란 표정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명화씨가 힘들겠구나 신경 쓰이던 참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진심보다는 실마리였다. 내게는 앞뒤를 재고 예의를 차릴 겨를이 없었다. 내가 모르는, 그녀는 어느 명화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다. 단순한 부부싸움은 아닙니다. 아무 말 없이 어젯밤 그 빗속으로 사라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면 좋아요. 무슨 말이라도 해주셔야 합니다. 나는 아내를 찾아야만 합니다. 사무장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내게는 희망의 변화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실마리를 줄 것이다. 하지만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규정상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든지 상담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머나먼 타국에 와서 살면서 아픔이 많은 분들입니다. 수처와 고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건 명화씨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녀는 규정을 말하고 있었다. 인간

명화는 달 아래 서있었고

나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만 보고 있었다

밤이 와도 달은 보이지 않았다

에 대한 예의를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사무장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다. 결코 한 인간을 아프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명화를 살리는데 쓰겠습니다. 나는 간절해졌고 사무장은 허물어졌다. 연변에는 비가 오지 않았으면.....

이

주여성단체 사무장이 지키지 못한 비밀은 대신 명화를 지켜 줄 것이다. 나는 주저 없이 비밀의 문을 열었다. 연결 공항은 비교적 한산했다. 공항에서도 시내 어느 곳에서도 사용하는 문자 체계는 한글과 한자의 혼용이었다. 앞에 한글이 먼저 그 다음이 한자였다. 전혀 이질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든 간판과 안내 문구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내 불안을 덜어 주었다. 적어도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 그랬다. 아직 명화의 국적은 중국이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2년이 지나야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명화의 나라에서 내 나라 말로 그녀를 찾아 나섰다. 공항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갔다. 하연 그만이였다. 어느 정도 시내를 벗어나자 끝없는 공방이 펼쳐졌다. 가고가고 공방이 단서였다. 명화가 보고 자랐을 푸른 평원이 바람에 너울대며 춤추고 있었다. 고단한 나

나에게는 소설 쓸 때가 가장 심장이 뛰는 순간 이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면서 살 것입니다

당선자 정영호씨



▲1968년 담양 출생 ▲광주대 대학원 문창과 석사과정

‘달의 꽃’을 쓰면서 꽤 긴 시간이 필요했다. 뜻대로 되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짐했다. 주인공 명화를 포기하지 말자. 어차피 소설쓰기가 인간에 대한 이해의 과정이라던 나는 끝까지 명화를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뿌리 뽑힌 채 어디에도 안착하지 못하는 이 세상 수많은 명화를 위해서 그래야만 했다. 인생의 한 단편을 그리지만 소설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새벽 늦게까지 모니터 앞에 앉아 스스로를 다잡곤 했다. ‘재능이 부족하면 끈기라도 있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나는 소설을 쓰고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소설을 쓸 때가 살아가면서 가장 심장이 뛰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캐릭터와 에피소드를 만들고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내가 느끼는 즐거움은 다른 어떤 것도 대신 해줄 수가 없

다. 내가 살아 있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앞으로도 소설을 쓸 것이다.

아낌없는 격려와 용기를 주신 광주대 문예창작과 선생님들께 감사 드린다. 선생님들 격려가 늘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의 글에 애정을 가지고 단소리 쓴 소리 해주신 오함진준 문우님들과 이화경 선생님께도 고마움 전한다. 가장 소중하고 멋진 남자 중우, 종찬 사랑한다. 부족한 글에 눈길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 전한다. 더 열정을 가지고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 가슴 깊이 새겨본다.

누구나 아픈 기억에 의한 거부반응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소망한다. 나의 글이 치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잠깐의 위로라도 될 수 있기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과 한 세상 같이 몽골면서 평생 소설을 쓰고 싶다. 글이 이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게 해줬으니 이 뜨거운 가

슴으로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 것이다. 정신 차려서 계속 달려라고 징소리 한 번 크게 울려주신 광주일보에도 노력하는 작가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단편소설 부문 심시평

제온 느껴지는 인물 표현 큰 장점

마지막까지 남은 작품은 ‘달의 꽃’과 ‘모자이크 알갱이들’ 두 편이었다. ‘모자이크 알갱이들’은 꼼꼼한 글쓰기가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갈대밭과 갯벌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섬세하게 이용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솜씨가 눈길을 끌었다.

‘달의 꽃’은 상대적으로 느슨해 보였다. 몽골의 평원에서 임태하여 한국에서 피어난 사랑 이야기. 자칫 산만해 보일 위험이 있었으나 작가는 원에치료센터라든, 일련 낯선 소재로 그 위험을 비껴갔다. 낯설고 먼 땅에 온 아내는 유독 물을 싫어하는 특성을 보이며 이 땅에서의 삶을 힘겨워한다. 비단 이주여성에게 뿐이겠는가, 결혼이란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니 누구나 뿌리 짚 옮겨심긴 나무와 조급도 다르지 않은 처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남편이 식물을 가꾸고 돌보살피는 그 애착함이 심사위원들을 움직였다.

식물들의 특성을 고루 열거하며 아내의 상태와 병치레해 나가는 서술 방식도 읽는 재미를 주었다. 심사위원 두 사람은 의견이 ‘달의 꽃’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적 높은 편이라 할 수는 없는 작품이나 소설의 공간 안에 인물들이 제온을 얻어 살아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이점은 다른 응모자들이 유념해야할

사항 중 하나이다. 재판정, 5.18의 광주, 집수리, 환상소설 등등 본심 대상작 15편은 저마다 특색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있으나 대체로 인물들이 지나치게 작가의 손 안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실에 매달린 인형처럼 움직이는 인물들은 소설을 감각하게 만들며 소설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 작가가 소설 전체를 장악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인물을 살아 숨 쉬게 만드는 일은 보다 필수적이다.

짖은 줄 바꾸기와 대화의 연속, 접속사의 남용, 등 최근 인기를 끄는 서술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변칙은 때로 즐거움을 주지만 그 자체로 의미를 획득하지 않으면 가볍게 보일 수밖에 없다. 문장 하나, 글자 하나의 선택에도 신중을 기하는, 촌스러운 글쓰기 연습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

란다. 아울러 소설 쓰기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성찰이 있어야한다는 사실도 병기하고 싶다. 당선자의 영예를 안는 것, 작가라는 타이틀을 획득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나 그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좋은 소설은 결코 쓰여 지지 않는다. 내게 소설은 무엇인가, 다른 이들에게 내 소설은 또 무엇인가, 미련하게 고민하고 고민하기를 바란다. 결국 문제는 울림이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내며 좋은 작가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또한 탈락한 이들에게는 낙담하고 꿈을 접는 일이 없기를, 재능을 의심하며 고통스러워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재능이란, 쓰고 쓰고 다시 쓰며 계속 쓰는 그 작업에 일컫는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심사위원=윤후명·서하진)



<유후명>

▲강원도 강릉 출생 ▲연세대 철학과 졸업 ▲1967년 '경향신문' 신춘문에 시 '빙하의 새' 당선 등단 ▲1979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소설 '산역' 당선 이후 소설 창작 ▲독원문학상, 한국일보 문학상 등 수상 ▲대표작 '둔황의 사랑' '원승이는 없다' '협계열차' '가장 멀리 있는 나' '새의 말을 듣다' 등 다수.



<서하진>

▲경상북도 영천 출생 ▲경희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 ▲1994년 소설 '그림자 외출' 등단 ▲제10회 한무숙문학상 제2회 백신은문학상 등 수상 ▲대표작 '책 읽어주는 남자' '사랑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 '라벤더 향기' '비밀', 장편 소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등 다수 ▲경희대 국문과 교수